

한국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관계절 비교 연구

김동혁*

1. 들어가며

여러 서양 언어 혹은 성서 히브리어나 고전 그리스어 등의 고전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 관계절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는 언제나 고민거리가 된다. 한국어에 관계절(관계 관형절)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언어의 관계절과는 표지(관계사)의 유무, 어순, 관계절 속 관계사의 역할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 외국어의 관계절을 원문의 구조 그대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관계절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어에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논문은 다음 순서를 따른다. 다음 단락에서는 언어 일반에서 관계절을 정의한다. 그 다음 두 단락은 한국어의 관계절과 성서 히브리어의 관계절을 차례대로 논의한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성서 히브리어의 관계절을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언어학 및 문법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개념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같은 단어가 문맥과 상황에 따라 다른 뜻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첫째, 영어 문법에서 널리 쓰는 ‘선행사(antecedent)’, 곧 관계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구는 ‘머리명사(head)’로 부를 것이다. ‘선행사’는 적절하지 않은데, 한국어의 경우 머리명사는 대개

* Yale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연세대학교 교목실 겸임교수.
donghyukk@gmail.com.

관계절 뒤에 오기 때문이다. ‘핵어’도 적절한 표현이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머리명사’로 통일한다. 둘째, ‘형용사’를 말할 때에는 그것이 한국어의 형용사인지 성서 히브리어 등 다른 언어의 형용사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형용사는 비슷한 점이 많지만, 한국어의 형용사는 두 언어의 형용사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¹⁾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품사의 하나인) ‘관형사’, (한국어 문장 성분의 하나인) ‘관형어’ 등 한국어 문법의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셋째, ‘관형절(modifying clause)’은 명사, 대명사 등의 체언류를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절을 가리킨다. ‘수식절’, ‘한정절’ 등으로도 불릴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관형절’을 일관되게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안긴문장’을 ‘종속절(subordinate clause)’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안은문장’을 ‘상위절(matrix clause)’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성서 히브리어’와 ‘히브리어’가 함께 쓰일 터이지만, 현대 히브리어는 본 논문의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두 용어는 언제나 ‘성서 히브리어’를 가리킨다.

2. 언어 일반에서의 관계절

범언어적 관점에서 관계절을 규정할 때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관계절은 명사구를 꾸며 주는 안긴문장이다. 둘째, 꾸밈을 받는 명사구는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에서 공유된다.²⁾ 아래 성경 본문을 보라.

나는 …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야훼다. (창 15:7, 『공동개정』)

I am the LORD who brought you from Ur of the Chaldeans. (NRS)

אֲנִי יְהוָה אֲשֶׁר הוֹצֵאתִיךָ מֵאֹרֶךְ כַּשְׂדִּים (BHS)

-
- 1) 한국어의 형용사와 영어 및 성서 히브리어의 형용사의 대표적인 차이점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처럼 활용 형태가 매우 다양한 반면 영어 및 성서 히브리어의 형용사는 변화형이 딱 적다. 둘째, 한국어의 형용사는 영어 및 성서 히브리어의 형용사와는 달리 서술어가 될 때 계사(copula)와 결합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동혁,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몇 가지 문법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9 (2016), 149-152를 참조하라.
 - 2) 홈스테트(Robert D. Holmstedt)는 이 두 개념을 차례대로 ‘종속(subordination)’과 ‘축 구성 성분(pivot constituent)’으로 부른다. Robert D. Holmstedt, “Relative Clause: Biblical Hebrew”, Geoffrey Khan, et al., eds.,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3 (Leiden: Brill, 2013), 350. 또한 Mark de Vries, “The Fall and Rise of Universals on Relativization”, *Journal of Universal Language* 6:1 (2005), 127-128을 보라.

위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과 이탤릭체로 된 부분은 관계절이다. 이들은 안긴문장으로서 각각 ‘야훼’, ‘the LORD’, ‘יהוה’를 꾸며 주는데, 이때 ‘야훼’, ‘the LORD’, ‘יהוה’는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에서 공유된다. 위 문장은 각각 아래와 같은 두 문장이 합쳐진 것이다.

나는 야훼다. + 야훼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I am the LORD. + The LORD brought you from Ur of the Chaldeans.

אֲנִי יְהוָה + יְהוָה הוֹצֵאתִיךָ מֵאוּר כַּשְׂדִּים

이러한 이해에서 한국어 문법에서 쓰는 ‘관계 관형절’이란 표현은 적절하다. ‘관계’는 성분이 공유됨을 가리키고, ‘관형’은 명사구를 꾸며 주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³⁾

관계 관형절은 동격 관형절과 구별된다.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이지만, ‘관계성(relativization)’은 없다. 즉, 체언 성분의 공유가 없다.

통일 왕국이 분열된 기록은 열왕기하에서 볼 수 있다. (← 통일 왕국이 분열되었다. + 그 기록은 열왕기하에서 볼 수 있다.)

위 예문에서 관형절인 ‘통일 왕국이 분열된’은 ‘기록’을 꾸며 주는데, 이때 ‘기록’은 안은문장에서는 주어 성분으로 나타나지만 안긴문장에서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 두 문장 사이에 공유되는 — 관계의 축이 되는 — 성분이 없으므로 위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이 아닌 동격 관형절이다.⁴⁾

3) 범언어적 관점에서 관계절을 소개하는 연구로 다음 두 글을 참고하라. Bernard Comrie,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138-164; Avery D. Andrews, “Relative Clauses”, Timothy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2: *Complex Construction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06-236.

4) 동격 관형절이 꾸며 줄 수 있는 명사는 한정되어 있다. 한국어의 경우 남기심, 고영근은 ‘사실, 증거, 계획, 흔적, 결심’ 등을 주요한 예로 든다. 남기심, 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4판 (서울: 박이정, 2014), 275. 더하여 ‘생각, 소식, 문제, 명령, 제안, 기억, 일’ 등도 동격 관형절이 꾸며 줄 수 있다(Ibid., 391 참조). 영어에서는 ‘fact’가 대표적이다. I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earth is round. 물론,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을 구분하는 기준은 꾸밈을 받는 머리명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안은문장의 명사가 안긴문장에서 공유되는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사실을 너는 모른다.’라는 문장에서 ‘사실’은 안은문장([그] 사실을 너는 모른다)과 안긴문장(‘내가 [그] 사실을 안다’)에서 공유되므로 ‘내가 아는’은 ‘사실’을 꾸며 주는 관계 관형절이다.

3. 한국어의 관계절

앞 단락의 논의는 범언어적 관점에서 관계절을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관계절이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언어에 따라 다양하다. 이 단락에서는 한국어의 관계절의 특징을 영어 및 히브리어와의 비교를 통해 논의할 것이다. 다음 주제들은 차례대로 (1) 어순, (2) 관계사와 공백, (3) 관계화 가능성 위계, (4)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이다.

3.1. 어순

한국어에서 관형어는 그 관형어가 꾸며 주는 체언 앞에만 올 수 있다.⁵⁾ 관계절도 관형어이므로 한국어의 관계절도 머리명사 앞에 온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관형어 — 관형사, 명사에 관형격 조사가 붙은 관형어, 형용사/동사가 전성된 관형어 — 도 머리명사 앞에 온다.

my new pretty pencil which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산 나의 예쁜 새 연필

위 영어 문장에서 소유 관계를 표현하는 한정어 ‘my’ 및 형용사 ‘new’와 ‘pretty’는 머리명사 ‘pencil’ 앞에 위치해 있고 관계절 ‘which I bought yesterday’는 머리명사 뒤에 위치해 있다. 반면,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관계절 ‘내가 어제 산’과 형용사에서 전성된 관형어 ‘예쁜’과 관형사 ‘새’, 그리고 체언에 관형격 조사(소유격 조사)가 붙어서 관형어가 된 ‘나의’가 모두 머리명사(‘연필’) 앞에 위치한다.

한국어에서 모든 관형어(관형사, 단일 형용사/동사에서 전성된 관형어, 체언에 격 조사가 붙은 관형어, 관형절)가 머리명사 앞에 온다는 사실에서 생겨나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관형어들이 중첩되면서 먼저 나온 관형어와 머리명사를 쉽게 연결 짓지 못할 수 있다. 위 예문에서 예컨대 ‘내가 어제 산’이나 ‘나의’는 이 말들의 꾸밈을 받는 ‘연필’과 조금 떨어져 있는데, 위 예문을 듣거나 읽는 이들은 의미를 따라가기 위해 신경을 좀 써야 할 것이다.

둘째, 관형사형 전성 어미(‘-ㄴ/-은’, ‘-는’, ‘-던’, ‘-르’ 등)가 중첩되는 문제가 생긴다. 한국어에서 관형절과 형용사/동사에서 전성된 관형어는 둘

5) 남기심, 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17.

다 마지막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야 한다.⁶⁾ 그런데 한국어에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연속으로 나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름다운 놀라운 그 이름⁷⁾

위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관형어인 ‘아름다운’의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을 대등적 연결 어미 ‘-고’로 바꾸어야 한다.⁸⁾

아름답고 놀라운 그 이름

이러한 문제는 위와 같이 단일 관형어 + 단일 관형어의 경우뿐 아니라, 단일 관형어 + 관형절의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 특히 관형절 + 관형절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the pencil which I bought yesterday which I will give to you as a present

?내가 어제 산 너한테 선물로 줄 연필

3.2. 관계사와 공백

영어나 히브리어와 달리 한국어에는 독립된 관계사가 없다. 또한 꾸밈을 받는 머리명사는 안은문장에만 나타나고 관계절 내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즉 공백(gap)으로 남겨진다.⁹⁾

너희가 살아갈 땅

the land in which you will be living

הָאָרֶץ אֲשֶׁר אַתֶּם יֹשְׁבִים בָּהּ (민 33:55)

영어와 히브리어에서는 독립된 관계사인 ‘which’나 ‘אֲשֶׁר’가 쓰이는 반면,

6) 이영옥, “영어관계절 구문 번역의 문제”, 『번역학연구』 5:1 (2004), 156.

7) 언어학의 관례를 따라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 앞에는 * 부호를, 표현이 어색한 문장 앞에는 ? 부호를 추가하기로 한다.

8) 최진실, 박기성, “영어 관계절의 영한번역 유형 연구”, 『언어과학』 16:1 (2009), 132.

9) 김민국, “핵어명사의 관계화 제약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47 (2010), 134. 여러 언어에서 관계절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관해서는 Bernard Comrie,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147-153을 참고하라.

한국어에는 이들에 상응하는 독립된 단어가 없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의 경우 장소를 나타내는 머리명사(또는 머리명사를 대신하는 단어)가 관계절에서 공백으로 처리된 반면(‘너희가 크 땅에서/크곳에서 살아갈 것이다’ → ‘너희가 살아갈’, ‘you will be living in the land/it’ → ‘in ~ you will be living’), 히브리어에서는 관계절 내에 ‘그곳에서’를 뜻하는 ‘바흐(בָּהֶ)’가 나타나므로 관계절 자체에 공백이 없다. 즉, ‘알렘 요세빔 바흐(אַתֶּם יוֹשְׁבֵי־בָהּ)’는 그 자체로 온전한 문장이 된다.¹⁰⁾

한국어의 관계절에서 머리명사가 공백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머리명사와 함께 조사도 사라진다는 점이다.¹¹⁾ 이것은 영어나 히브리어에서 격을 나타내는 표지가 보존되는 점과 대조된다. 위의 예문들에서 각 관계절은 본래 문장 형태가 아래와 같았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 → 너희가 살아갈

You will be living in the land. → in which you will be living

אַתֶּם יוֹשְׁבֵי־בָהּ → אַתֶּם יוֹשְׁבֵי־בָהּ

영어에서는 본래 문장의 ‘the land’만 공백화되고 그것을 지배하던 전치사 in은 관계절이 된 후에도 남아 있다. 히브리어의 경우는 전치사구 전체가 그대로 남아 있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는 본래 문장의 조사 ‘에서’가 관계절에서는 사라진다.

대개의 경우 격 표지가 사라지더라도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격 표지가 사라짐으로써 문장이 둘 이상의 뜻을 가지는 사례가 없지 않다.

그 사람이 온 마을은 작았다.¹²⁾

← 그 사람이 그 마을에서 왔다. + 그 마을은 작았다.

← 그 사람이 그 마을로 왔다. + 그 마을은 작았다.

반면, 예컨대 영어에서는 격 표지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위 두 가지 의미는 서로 다른 문장으로 표현된다.

10)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머리명사가 관계절 속에서 공백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서 히브리어는 경우에 따라 공백화되기도 하고 위와 같이 표현되기도 한다.

11) 김태한, “영어와 한국어의 관계절”, 『언어과학연구』 7 (1990), 42.

12) 이 예문은 Bernard Comrie,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152에 나오는 것을 조금 수정한 것이다. 격을 나타내는 표지가 사라지면서 의미가 둘 이상이 되는 현상에 관해서는 Ibid.를 참고하라.

The town to which the person came was small.

The town from which the person came was small.

3.3. 관계화 가능성 위계

한국어에서 관계화가 될 수 있는 격은 주격, 목적격 및 부사격의 일부이다. 부사격 중에서는 간접 목적어로도 불리는 여격이 관계화가 가능하고, 시간, 장소, 도구를 표현하는 경우도 관계화가 가능하다.¹³⁾

주격: 베델을 사랑한 야곱 ← 야곱이 베델을 사랑했다.

목적격(직접 목적어): 야곱이 사랑한 베델 ← 야곱이 베델을 사랑했다.

여격(간접 목적어): 야곱이 선물을 준 아들 ← 야곱이 [그]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시간 부사격: 야곱이 꿈을 꾸어젓밤 ← 야곱이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장소 부사격: 야곱이 물을 마신 우물 ← 야곱이 [그]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

도구 부사격: 야곱이 물을 떠낸 두레박 ← 야곱이 [그] 두레박으로 물을 떠냈다.

위에서 예를 든 부사격 — 간접 목적어/여격, 시간, 장소, 도구 — 외에 다른 부사격은 관계화가 불가능한 듯하다. 예컨대, 경로, 이유/원인, 자격, 비교, 기점, 동반을 표현하는 부사어는 관계화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¹⁴⁾

본래의 문장에서 어떤 성분이 관계화가 될 수 있는가는 언어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영어와 히브리어는 모든 사격 부가어(oblique case adjunct, 한국어의 부사어에 상응한다.)가 관계화가 가능하고 심지어 소유격도 관계화가 가능하다.

사격(동반): the man with whom I worked today

הָאִישׁ אֲשֶׁר עָשִׂיתִי עִמּוֹ הַיּוֹם (룻 2:19)

*내가 오늘 일한 남자 (← 내가 오늘 그 남자와 일했습니다.)¹⁵⁾

13) 김민국, “핵어명사의 관계화 제약에 대한 연구”, 138-139; 연재훈, “유형론적 관점의 한국어 관계절 연구”, 『국어학』 63 (2012), 425-429.

14) 김민국, “핵어명사의 관계화 제약에 대한 연구”, 138-139; 연재훈, “유형론적 관점의 한국어 관계절 연구”, 427-428.

15) 이 경우 ‘함께’를 삽입하게 되면 관계화가 가능해진다. ‘내가 오늘 그 남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 ‘내가 오늘 함께 일한 남자’. 이런 ‘조정’을 통해 한국어 관계절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은 번역자에게 중요한 힌트를 준다.

소유격: the Canaanites in whose land I am dwelling
 הַכְּנַעֲנִי אֲשֶׁר אֲנִי יֹשֵׁב בְּאֶרְצוֹ (창 24:37)
 *내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 내가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서 살고 있다.)

언어에 따라 관계화가 가능한 문장 구성 성분이 달라지는 문제에 답하기 위한 시도로서 키난과 콤프리(Edward L. Keenan and Bernard Comrie)는 ‘명사구의 관계화 가능성 위계(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라는 개념을 제안했다.¹⁶⁾ 이 개념이 제안하는 바는 범언어적 관점에서 어떤 문장 구성 성분은 다른 구성 성분보다 관계화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어 > 직접 목적어 > 간접 목적어 > 사격 보어(oblique case complement) > 소유격 > 비교의 대상

여기서 ‘>’이 의미하는 바는 앞의 것이 뒤의 것보다 관계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언어는 문장의 주어만 관계화할 수 있고, 어떤 언어는 주어와 직접 목적어만 관계화할 수 있고, 어떤 언어는 주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만 관계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언어가 사격 보어를 관계화할 수 있다면 그 언어는 앞의 세 성분(주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을 당연히 관계화할 수 있는 것이다.¹⁷⁾

한국어의 경우, 주어와 직접 목적어는 예외 없이 관계화가 가능한 듯하며, 사격(oblique case)은 앞에서 본 대로 일부만 관계화가 가능하다. 소유격은 원칙적으로 관계화가 불가능하다.¹⁸⁾ 영어의 경우는 위의 여섯 가지 범주 모두 관계화가 가능하다.¹⁹⁾

3.4.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

관계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제한적 관계절은 머리명사를 특정(제

16) Edward L. Keenan, and Bernard Comrie,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1 (1977), 66. 또한 연재훈, “유형론적 관점의 한국어 관계절 연구”, 425-426을 보라. ‘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는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로도 번역된다.

17) Edward L. Keenan and Bernard Comrie,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66.

1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민국, “핵어명사의 관계화 제약에 대한 연구”, 155-158을 참고하라.

19) 사격과 소유격의 경우는 앞의 예문들을 참고하라. 비교 대상의 예로는 ‘the young boy than whom John is weaker’를 들 수 있다.

한)하기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비제한적 관계절은 머리명사를 특정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이미 특정돼 있는 머리명사에 정보를 보태 주기만 한다.²⁰⁾ 이 둘이 쉽게 구별되는 영어의 예를 우선 보라.

I know the girl who is wearing a baseball cap.

I know the girl, whose mother is my teacher.

첫 번째 문장 속 관계절은 제한적 관계절이다. 즉, ‘girl’이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서는 관계절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 문장 속 비제한적 관계절은 ‘the girl’을 특정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화자와 청자는 ‘the girl’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미 알고 있고, 뒤따르는 관계절은 ‘the girl’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소녀의 어머니가 나의 선생님이라는)를 제공할 뿐이다.

한국어에서도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이 모두 사용된다. 다만 영어의 경우 글말에서 두 관계절이 쉽표로 구별되는 것과 달리, 한국어에서는 글말에서 둘이 구별되지 않는다.²¹⁾ 아래의 두 예문을 보라.

비싼 양피지를 소중히 다루어라.

예쁜 꽃이 향기도 좋다.

‘비싼’과 ‘예쁜’은 둘 다 관계 관형절이다. 각각 ‘양피지가 비싸다’와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에서 주어가 관계화되었기 때문이다.²²⁾ 두 관계절은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비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비싼 양피지’라는 말은 양피지가 본래 (다른 재료보다) 비싸다는 뜻을 나타낼 수도 있고(비제한적), 책상 위에 널린 여러 종류의 양피지 중 비싼 양피지만을 가리킬 수도 있다(제한적). 마찬가지로 ‘예쁜 꽃’에서 ‘예쁜’도 꽃이란 본디 예쁘다는 화자의 판단을 삽입한 것일 수도 있고(비제한적), 여러 종류의 꽃 중 예쁜 꽃만을 가리킬 수도 있다(제한적).²³⁾

비제한적 용법임이 확실한 경우가 있는데, 관계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20) Bernard Comrie,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138.

21) 진실로, “관계절 구문의 정보구조와 정보흐름 재현 전략”, 『번역학연구』 8:2 (2007), 200-201. Bernard Comrie,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138.

22) ‘비싼’과 ‘예쁜’이 단일 형용사임에도 관계절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남기심, 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393을 보라.

23) 민재기, “한국어 관계절에 관한 연구”, 『통일인문학』 23 (1991), 73.

이미 특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고유 명사가 그러한 예이다.

아들을 잃을 뻔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을 잃을 뻔한’은 관계절인데(‘사라는 아들을 잃을 뻔했다’), 사라를 특정(혹은 제한)해 줄 수 없다. 고유 명사로서 ‘사라’는 이미 특정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⁴⁾ 선행사가 이미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그 선행사를 꾸며 주는 관계절은 비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관계절은 선행사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만 제공한다.

4. 성서 히브리어의 관계절

성서 히브리어의 관계절에 관한 아래의 논의는 한국어의 관계절에 관한 앞 단락의 논의 순서를 따른다. 기본적인 개념들은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성서 히브리어의 관계절이 한국어 및 영어의 관계절과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만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4.1. 어순

성서 히브리어의 관계절의 어순에 관해서는 많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성서 히브리어의 머리명사와 관계절의 어순은 한국어와 정반대이다. 더 나아가 머리명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 어구 역시 한국어의 관형어와는 반대로 머리명사 뒤에 나온다.

הָהָרִים הַגְּבוּהִים אֲשֶׁר-תַּחַת כָּל-הַשָּׁמַיִם (창 7:19)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높은 산들²⁵⁾

성서 히브리어에서 명사가 명사를 꾸며 주는 방식인 연계 구문의 경우에도 꾸며 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명사 뒤에 나온다.

מֶלֶךְ-כְּנָעַן אֲשֶׁר מֶלֶךְ בְּחֶצְרוֹ (삿 4:2)

하술을 다스리는 가나안의 왕

24) 물론, ‘사라’라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민재기, “한국어 관계절에 관한 연구”, 73을 참고하라.

25) 이하 히브리어의 한국어 번역은 다른 표지가 없는 경우 필자의 사역이다.

4.2. 관계사, 공백, 재생 요소, 관계화 가능성 위계

히브리어에는 머리명사와 관계절을 연결해 주는 관계사가 있다. 관계사는 독립된 단어로도 나타나고 의존 형태소로도 나타난다. 독립된 단어로는 앞에서 여러 차례 본 ‘아세르(אשר)’가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특히 시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הַ)’, ‘주(וַ)’, ‘조(וֹ)’ 등이 있다.²⁶⁾ 관계절의 첫 단어에 접두하는 관계사로는 ‘세(-שֶׁ)’가 많이 쓰이고,²⁷⁾ 정관사와 같은 형태를 지닌 ‘하(-הַ)’도 있다.²⁸⁾ 마지막으로 공(空)관계사(zero-relativizer)도 있는데, 관계사 없는 관계절은 공관계사가 이끈다고 말할 수 있다.²⁹⁾ ‘아세르’의 예는 앞서 많이 다루었다. 아래 다른 관계사가 사용된 예들을 보라.

- וַ: עָם-וּו יִצְרָתִי לִי (사 43:21, “내가 나를 위해 빛은 백성”)
 -שֶׁ: הַיּוֹם שֶׁקָּוִינָהוּ (애 2:16, “우리가 기다리던 날”)
 -הַ: כֹּל הַהַקְדִּישׁ שֶׁמוֹאֵל הָרֵאָה (대상 26:28, “선견자 사무엘이 성별한 모든 것”)³⁰⁾
 ∅: מָה-הַדְּבָר הַזֶּה עֲשִׂיתָ לָנוּ (삿 8:1, “당신이 우리에게 한 이 일이 뭐요?”)

히브리어에서 관계사는 머리명사 없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관계사가 머리명사의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¹⁾

- שָׁמַר-לְךָ אֵת אֲשֶׁר אָנֹכִי מְצַוְךָ הַיּוֹם (출 34:11, “내가 너에게 오늘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히브리어는 영어처럼 관계절 속 머리명사의 자리가 공백으로 남기도 하지만, (영어와 달리) 그 자리에 머리명사를 대신하는 재생 요소(resumptive element)가 나타날 수도 있다. 아래 예문 중 첫 둘은 공백화된 예들이고, 그

26) GKC, §138g; JM, §145c.

27) JM, §503b.

28) JM, §§145d-f.

29) Robert D. Holmstedt, “Relative Clause: Biblical Hebrew”, 352-353.

30) 여기서 ‘-הַ’는 정관사가 될 수 없다. 뒤따르는 단어가 정동사(finite verb)이기 때문이다. Ibid., 352.

31) Ibid., 354. 영어의 경우 ‘what’으로 시작하는 관계절이 그러한 예이다. ‘I will do what you tell me to do.’ 진실로, “관계절 구문의 정보구조와 정보흐름 재현 전략”, 196-197을 보라.

다음 들은 재생 요소가 나타난 경우이다.

הָאִישׁ אֲשֶׁר הֶעֱלָנוּ מֵאֶרֶץ מִצְרַיִם (출 32:1,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올린 그 남자”)

הַגּוֹי אֲשֶׁר־אֲנִי מְשַׁלַּח מִפְּנֵיכֶם (레 20:23,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

הָאֶרֶץ אֲשֶׁר אַתֶּם יֹשְׁבִים בָּהּ (민 33:55, “너희가 살아갈 땅”)

הָאִישׁ אֲשֶׁר נִמְצָא הַגְּבִיעַ בְּיָדוֹ (창 44:17, “the man in whose hand the cup was found”)³²⁾

첫 번째 예문에서 머리명사 ‘하이쉬(הַאִישׁ “그 남자”)’는 관계절 속에서 공백으로 처리되었고, 두 번째 예문의 머리명사 ‘학고이(הַגּוֹי “그 민족”)’도 마찬가지이다. 세 번째 예문에서 ‘바흐(בַּה “그곳에”)’ 속 접미 인칭 대명사는 ‘하아레츠(הָאֶרֶץ “그 땅”)’의 재생 대명사이고, 네 번째 예문에서 ‘야도(יָדוֹ “그의 손”)’ 속 접미 인칭 대명사는 ‘하이쉬(הַאִישׁ “그 남자”)’의 재생 대명사이다.

관계화되는 단어가 공백화될지 재생 요소로 나타날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경향성의 문제인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즉, 홀스테트(Robert D. Holmstedt)가 기술한 바와 같이 재생 요소가 사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관계화 가능성 위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아래에 관계화 가능성 위계를 한 번 더 제시한다.

주어 > 직접 목적어 > 간접 목적어 > 사격 보어 > 소유격 > 비교의 대상

관계화가 쉬운 성분(예컨대, 주어나 직접 목적어)일수록 공백화의 경향성이 강하고 관계화가 어려운 성분(예컨대, 사격 보어나 소유격)일수록 재생 요소를 사용하려는 경향성이 강하다. 홀스테트에 따르면, 재생 요소는 히브리어의 소유격과 전치사구(위의 사격 보어 및 간접 목적어에 상응한다)에서 거의 항상 나타난다. 직접 목적어의 경우는 재생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공백화되기도 한다. 주어의 경우는 재생 요소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³³⁾ 성서 히브리어에서 재생 요소로 사용되는 단어 및 형태소로는 독립 인칭 대명사, 접미 인칭 대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삼(שָׁם, “거기

32) 소유격이 관계화된 것을 한국어로 그대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영어로 번역했다.

33) Robert D. Holmstedt, “Relative Clause: Biblical Hebrew”, 353. 보다 자세한 논의는 Robert D. Holmstedt, *The Relative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Studies in Ancient West Semitic 10 (Winona Lake: Eisenbrauns, 2016), 169-175를 참고하라.

에”)’이 있다.³⁴⁾

4.3.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

한국어처럼 — 그리고 영어와는 달리 — 성서 히브리어의 글말에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을 구별하는 표지는 없는 듯하다.³⁵⁾ 그러나 흠스테트는 도움이 되는 기준을 몇 개 제시했다. 우선, 관계사 없는 관계절은 항상 제한적이다(아래 샷 8:1). 머리명사가 연계형일 때도 관계절은 제한적이다(아래 창 40:3).³⁶⁾

מָה־הַדְּבָר הַזֶּה עֲשִׂיתָ לָנוּ (샷 8:1, “당신이 우리에게 한 이 일이 뭐요?”)
מָקוֹם אֲשֶׁר יוֹסֵף אָסוּר שָׁם (창 40:3, “요셉이 갇혀 있는 장소”)

반면, 머리명사가 이미 특정된 경우 — 즉 고유 명사이거나 유일한 대상일 경우 — 뒤따르는 관계절은 비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아래 창 33:18). 그에 더하여 흠스테트는 머리명사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계절이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비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아래 신 16:22).

וַיָּבֵא יַעֲקֹב שָׁלֹם עִיר שָׁכֶם אֲשֶׁר בְּאֶרֶץ כְּנָעַן (창 33:18, “야곱이 세겜 성에 평안히 들어갔는데, 세겜 성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
וְלֹא־תָקִים לָךְ מַצְבָּה אֲשֶׁר שָׂנֵא יְהוָה אֱלֹהֶיךָ (신 16:22, “너는 너 자신을 위해 돌기등을 세워서 안 된다. 그것[돌기등]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첫 번째 예문에서 머리명사는 고유 명사이므로 더 이상 특정될 수 없다. 뒤따르는 관계절은 ‘이르 세겜(עִיר שָׁכֶם, “세겜 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 줄 뿐이다. 두 번째 예문에서 ‘마체바(מַצְבָּה, “돌기등”)’는 관계절에 의해 특정/제한되지 않는다. 만약 ‘마체바’가 특정된다면 하나님이 본문 속 특정 돌기등만 싫어하시고 다른 돌기등은 싫어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³⁷⁾

34) Robert D. Holmstedt, “Relative Clause: Biblical Hebrew”, 354.

35) Ibid., 355.

36) Ibid., 356.

37) Ibid., 355-356.

5. 번역 사례

이 단락에서는 앞의 두 논의, 즉 한국어의 관계절에 관한 논의와 성서 히브리어의 관계절의 논의를 연결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관계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서 히브리어의 한국어 번역에서 문제가 될 만한 본문을 몇 개 선택하여 기존 공인 역본들의 번역과 함께 간략히 논의하고 필자의 번역을 제안할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꾸밈 구조가 복잡한 경우이다. 특히 관계절이 이중으로 나온다.

אֲנֹכִי הָאֵל בֵּית־אֵל אֲשֶׁר מְשַׁחֵת שֶׁם מִצִּבְחָ אֲשֶׁר נִדְרַתָּ לִּי שָׁם נָדָר (창 31:13)

나는 벰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개역개정』)

“나는 네가 석상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을 했던 벰엘의 하나님이 다.” (『공동개정』)

“나는 벰엘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새번역』)

제안 → “나는 벰엘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네가 돌기둥에 기름 부었고, 거기서 네가 나에게 서원을 하였다.”

관계절이 머리명사 앞에 나와야 하는 일반적인 한국어 어순을 따르려 한다면, 『공동개정』과 같이 번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에서 원문의 관계절을 끊어서 번역하는 것이 낫다. 첫째, 위 예문의 두 관계절은 모두 비제한적이다. 머리명사가 고유 명사인 ‘베트-엘(בֵּית־אֵל)’이기 때문이다. 비제한적 관계절의 경우는 머리명사를 특정해 주기 위해 관계절이 머리명사 앞으로 옮겨 올 필요가 없다. 관계절이 없어도 머리명사는 이미 특정돼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관계절이 이중으로 나오므로 『공동개정』 같은 번역을 하게 되면 꾸밈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³⁸⁾ 필자의 제안은 『개역개정』 및 『새번역』의 번역과 기본적으로 같은데, 이 같은 번역은

38) 이영옥은 영어 관계절의 번역에 관한 논의에서, 머리명사가 관계절 외에 또 다른 말의 꾸밈을 받을 때에는 문장을 둘 이상으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다. 이영옥, “영어관계절 구문 번역의 문제”, 161. 보다 자세한 논의는 Ibid., 157-159를 참조하라.

한국어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아래의 두 번째 사례는 두 가지 점이 문제가 된다. 우선, 관계절이 제한적인지 비제한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꾸밈 구조가 복잡하다. 머리명사가 관계절과 명사구와 형용사의 꾸밈을 받는다.

וַתֵּקַח רַבֵּקָה אֶת־בְּנֵי עֵשָׂו בְּנֵי הַנְּדָל הַחֲמֹדִת אֲשֶׁר אִתָּהּ בְּבֵית (창 27:15)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개역개정』)

리브가는 집에 보관해 두었던 큰아들 에사오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공동개정』)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새번역』)

제안 → 리브가가 큰아들 에서의 옷 중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옷은 리브가가 집 안에 갖고 있던 것이었다.

위 히브리어 문장을 번역할 때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관계절(אֲשֶׁר אִתָּהּ בְּבֵית)이 비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비그데(בְּנֵי, “옷들”)’는 관계절에 앞서 이미 연계 명사구(עֵשָׂו בְּנֵי הַנְּדָל, “큰아들 에서의”)와 형용사(חֲמֹדִת, “좋은”)의 꾸밈을 받는데, 이때 연계 명사(עֵשָׂו, “에서”)가 특정되었으므로 ‘비그데’도 특정된다(즉, ‘[certain] garments of Esau’가 아니라 ‘the garments of Esau’). 더불어 형용사 ‘하무돏(חֲמֹדִת, “좋은”)’도 문맥에서 최상급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명사 ‘비그데’는 다시 한 번 특정된다. 따라서 (이미 특정된) ‘큰아들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머리명사로 하는 관계절은 비제한적일 수밖에 없다.³⁹⁾ 위의 세 공인 역본은 관계절을 제한적으로 이해했으므로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이 관계절을 비제한적으로 이해할 때 얻는 부수적인 이점이 있다. 위 문장은 꾸며 주는 어구가 셋(연계 명사구, 형용사, 관계절)이나 되어서 꾸밈 구조가 복잡한데, 한국어에서 비제한적 관계절은 머리명사 다음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나으므로 자연스럽게 문장을 끊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필자의 제안처럼 이어진문장으로 번역하거나 아예 두 문장으로 번역할 수 있다

39) KJV, NRS, ESV, NET, TNK 등 다수의 영어 역본도 이 관계절을 비제한적 관계절로 번역하였다.

(‘리브가가 … 가지고 왔다. 그 옷은 …’). 이로써 번역문은 원문의 뜻도 더 잘 전달하고 이해도 더 잘 된다.

세 번째 사례는 원문의 구조를 그대로 옮길 수 없는 경우이다. 아래 히브리어 예문은 앞에서 간략히 다루었던 것인데, 한국어에서 관계화가 불가능한 소유격이 관계화된 예이다. 이탤릭체와 밑줄은 각 문장의 머리명사와 관계절을 표시한 것이다.

לֹא-תִתֶּקַח אִשָּׁה לְבָנִי מִבְּנוֹת הַכְּנַעֲנִי אֲשֶׁר אֲנִי שֹׂבֵב בְּאֶרֶץ (창 24:37)

참고: “You shall not get a wife for my son from the daughters of the Canaanites in whose land I dwell.” (TNK)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개역개정』)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는 며느릿감을 고르지 않겠다.” (『공동개정』)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새번역』)

제안 → “너는 내 아들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찾으려면 안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인 사람들 말이다.”

세 공인 역본 모두 관계절과 머리명사의 한국어 번역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⁴⁰⁾ 세 역본 모두 머리명사를 ‘땅’ 혹은 ‘가나안 (땅)’인 것처럼 번역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사람들의’ 소유라는 원문의 의미(TNK의 “the Canaanites in whose land I dwell”을 참고하라)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 이 문제는 앞서 관계화 가능성 위계와 관련하여 살펴본바 소유격이 히브리어에서는 관계화될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이영옥은 상응하는 관계절 구조가 없을 때에는 문장을 둘로 나누거나 관계절의 구조를 다르게 만들라고 조언한다.⁴¹⁾ 필자의 번역은 문장을 둘로 나누면서 아

40) 『공동개정』의 경우 번역 과정에서 화자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종으로 수정하였기에 문장 자체가 많이 다르다. 그러나 문장 안에서 표현된 머리명사와 관계절의 구조 자체는 다른 공인 역본의 번역과 거의 같다.

41) 이영옥, “영어관계절 구문 번역의 문제”, 162.

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의 현 소유주가 가나안 사람들임을 나타내고자 한 시도이다.⁴²⁾

6. 나가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 일반에서 관계절은 머리명사의 공유와 안긴문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국어의 관계절은 머리명사 앞에 나타나며 이것은 다른 관형어들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어의 관계절에서 머리명사는 언제나 공백화된다. 관계화 가능성 위계에서 한국어는 주어, 직접 및 간접 목적어, 일부 사격만 관계화될 수 있다. 한국어의 관계절에는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이 모두 있지만 글말에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성서 히브리어의 관계절은 어순이 한국어와 정반대이다. 즉, 머리명사를 꾸며 주는 말들은 관계절을 포함하여 머리명사의 뒤에 온다. 히브리어는 다양한 관계사를 사용하며, 관계절 내에서 머리명사는 공백화될 수도 있고 재생될 수도 있다. 관계화 가능성 위계에서 히브리어는 주어, 직접 및 간접 목적어, 사격 보어, 소유격까지 관계화가 가능하다. 히브리어에도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이 모두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이를 바탕으로 관계절을 포함하는 창세기의 세 본문(24:37; 27:15; 31:13)을 번역해 보았다.

성서 히브리어의 관계절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 어순이 반대가 된다는 점과 꾸밈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번역자는 원문의 문장 수나 관계절의 구조를 그대로 옮기려 하기보다는 문장 및 문맥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용 언어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대의 독자는 성서의 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관계사, 관계절, 한국어, 성서 히브리어, 수식.

relative pronoun, relative clause, Korean, Biblical Hebrew, modification.

(투고 일자: 2019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19년 2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19년 4월 22일)

42)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단락의 논의의 목적은 필자의 번역만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위에서 제안한 번역들은 여러 타당한 번역들 중 하나일 뿐이다. 다만 위 논의에서 필자는 번역함에 있어 히브리어의 관계절과 한국어의 관계절의 특질을 놓치지 않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어와 히브리어는 구조에 있어 차이를 보이므로, 번역 과정에서 의미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다. 필자의 제안들도 그 점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참고문헌>(References)

- 김동혁,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몇 가지 문법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9 (2016), 148-159.
- 김민국, “핵어명사의 관계화 제약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47 (2010), 131-162.
- 김태한, “영어와 한국어의 관계절”, 「언어과학연구」 7 (1990), 41-48.
- 남기심, 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4판, 서울: 박이정, 2014.
- 민재기, “한국어 관계절에 관한 연구”, 「통일인문학」 23 (1991), 59-78.
- 연재훈, “유형론적 관점의 한국어 관계절 연구”, 「국어학」 63 (2012), 413-457.
- 이영옥, “영어관계절 구문 번역의 문제”, 「번역학연구」 5:1 (2004), 145-166.
- 진실로, “관계절 구문의 정보구조와 정보흐름 재현 전략”, 「번역학연구」 8:2 (2007), 193-216.
- 최진실, 박기성, “영어 관계절의 영한번역 유형 연구”, 「언어과학」 16:1 (2009), 129-148.
- Andrews, Avery D., “Relative Clauses”, Timothy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2: *Complex Construction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06-236.
- Comrie, Bernard,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De Vries, Mark, “The Fall and Rise of Universals on Relativization”, *Journal of Universal Language* 6:1 (2005), 125-157.
- Gesenius, Wilhelm, Kautzsch, E., and Cowley, A. E., *Gesenius' Hebrew Grammar*, 2nd English ed., Oxford: Clarendon, 1910.
- Holmstedt, Robert D., “Relative Clause: Biblical Hebrew”, Geoffrey Khan, et al., eds.,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3, Leiden: Brill, 2013, 350-357.
- Holmstedt, Robert D., *The Relative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Studies in Ancient West Semitic 10, Winona Lake: Eisenbrauns, 2016.
- Joüon, Paul, and 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ev. English ed., Subsidia Biblica 27, Rome: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 Joüon, Paul, and Muraoka, T.,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 Keenan, Edward L. and Comrie, Bernard,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1 (1977), 63-99.

<Abstract>

Relative Clauses in Korean and Biblical Hebrew

Dong-Hyuk Kim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dual. The major part is devoted to describe and elucidate relative clauses in Korean and in Biblical Hebrew in general. The following section presents translations of some sample Biblical Hebrew texts that include relative clauses.

Relative clauses in general are defined by subordination and the sharing of a head noun phrase. In Korean, the relative clause shows the following traits: it precedes the head noun it modifies like all other kinds of noun phrase modifiers; the head noun shows a gap within the relative clause; on the spectrum of the 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 Korean shows relativizations of subjects, direct and indirect objects, and some oblique cases; Korean uses both restrictive and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s, which are not distinguished graphically. On the other hand, the relative clause in Biblical Hebrew show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it shows exactly the opposite word order by following the head noun; Biblical Hebrew uses various relative pronouns and markers; the head noun can show up either as a gap or as a resumptive element; on the 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 Biblical Hebrew can relativize subjects, direct and indirect objects, oblique cases, and possessives; Biblical Hebrew uses both restrictive and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s, which are not distinguished graphically. At the end of the paper, it suggests Korean translations of Genesis 24:37; 27:15; and 31:13, which incorporate the above discussion.